

현대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 (II)

최 경 희*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Socio-Semiotic Analysis of Plural Sexuality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I)

Kyung-Hee Choi* · Min-Ja Kim**

Ph.D.,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2. 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sexuality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with the conception of plural sexuality from post-structuralism in socio-semiotic approach. It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provid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of this study. The second part ultimately accomplishes this study by empirical research, which is to infer plural sexuality articulated with fashion images in men's and women's popular fashion magazines in Korea since 2000 and sexual ideology signified in modern fashion. In this part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focused on the conception of sexuality on the basis of Foucault's idea, and then the framework for this study was made up from socio-semiotic perspective. The conception of sexuality in Foucauldian post-structural idea maintains the view of plural sexuality, which floats by power relationship between dominant and oppositional discourses in a specific historical context. Socio-semiotics suggests a contextual methodology to analyze the phenomena of material culture by articulating the range of material objects with that of ideology. The socio-semiotic model applied to sexuality represented in fashion is the framework of classifying into the several versions of fashion images from fashion as a material object and then inferring sexual ideology codified in them. In addition, three stages of producer/object/user in socio-semiotics were revised into 'dominant sexuality' with mainstream fashion out of dominant discourses, 'oppositional sexuality' to create anti-fashion from oppositional discourses of subculture, and 'alternative sexuality' to be appropriated to dominant discourses by the mix of mainstream fashion and anti-fashion.

Key words: sexuality(성), post-structuralism(후기구조주의), socio-semiotics(사회기호학), plurality(다원성), mainstream fashion(주류패션), anti-fashion(반패션)

I. 서론

현대 소비사회에 나타난 다양한 성적 주체의 출현은, 개 개인의 삶과 연결된 성(sexuality)¹⁾ 담론과 성적 욕망을 가시화하는 물질문화의 확산과 함께 이 시대에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성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 물질문화의 하나인 패션은 이러한 성을 형상화하는 일종의 상징체계로,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보다 다원화되고 모순적인 성 정체성의 표현과 실천적 장이 된다.

Foucault²⁾는 성이라는 주제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유동하므로 선천적이거나 자연적인 특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성을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권력과 지식 체계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성은 단순히 성차(sex)나 성별(gender)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성적 욕망, 정체성, 이데올로기, 제도나 관습 등 생물학적, 사회적 영역을 포괄한 전체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적 성 정체성 표현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라는 역사적 시기와 관련한 맥락적 차원의 연구와 함께,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다원적 성 정체성들 간의 지배와 저항적 관계가 패션과 어떻게 접합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기호학(socio-semiotics)은 물질문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맥락적 연구로, 물질대상의 영역과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세분화된 기호의 분해와 이데올로기의 지배와 저항의 관계를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물질문화의 함축적 의미를 제시한다. 이 점에서 사회기호학은 사회 내 타 물질대상의 영역 뿐 아니라,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맥락적 연구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혹은 동성애에 이르는 여러 방면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주로 페미니즘적 측면, 정신분석학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미학적 측면 등의 이론적 토대에서 출발한 이 연구들은 주로 문헌연구 중심의 성 정체성 유형 분류와 이에 적합한 사진사례의 추출로 이루어져 실증적 분석내용이 다

소 협소하였다. 또한 주로 성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으로 여성성 혹은 남성성의 어느 한 쪽의 측면만을 다루거나 양 성을 모두 다루는 경우에도 다양한 성 정체성들 간의 권력에 대한 사고의 결여로, 맥락적 시각에서 패션으로 코드화 된 이데올로기 혹은 담론의 영역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기구조주의적 측면의 다원적 성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기호학적 시각에서 2000년 이후 남녀 패션잡지에 나타난 다원적 성 유형과 현대패션에 코드화 된 성 이데올로기를 추론함으로써 현대패션에 표현된 성을 맥락적 차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2000년 이후라는 시간적 범위는 본 연구의 주제와 패션전문잡지의 확산시기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역사적 측면에서 새로운 세기라는 패션의 공시성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패션전문잡지가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 잡지들의 국내 유입과 더불어 속출하여 2000년 이후에는 이들이 대중화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본 고에서는 실증적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후기구조주의적 성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사회기호학 모델을 패션에 관한 연구에 적용하여, 맥락에 따라 물질대상으로서의 패션과 접합된 성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의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성의 개념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의 구분에 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구조주의적 측면의 성 개념에 근간한 것으로, 후기구조주의적 측면에서는 Foucault의 성에 대한 사고를 중심으로 성을 다원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본 장에서는 주로 Foucault를 중심으로 한 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해 패션에 표현된 성을 다원적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성의 개념

성과 관련한 개념에는 성차(sex), 성별(gender) 그리고 성(sexuality)이 있다.⁴⁾ Oakley⁵⁾에 따르면, '성차(sex)'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 즉 성기에 있어서의 가지적인 차이이며 생식의 기능과 관련된 차이를 언급하는 반면, '성별(gender)'은 문화의 문제로 이는 '남성적인' 그리고 '여성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구분을 가리킨다. 이러한 구분은 구조주의 페미니즘의 성 개념에 근간한 것으로, 구조주의적 페미니즘은 이러한 구분을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부과한 것이라 간주함으로써 성차와 성별의 관계의 자의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주로 성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조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남성우월적인 불평등한 성별 관계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 이데올로기의 이분법적 코드화는 다양한 문화적 매커니즘을 통해 드러난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은 각각 문화/자연, 정신/몸, 행동하기/존재하기, 모험/사랑, 관음적 응시자/물신적 욕망의 대상, 성취와 전문성/몸과 패션, 공적 영역/사적 영역, 적대적 권력/쾌락적 권력 등의 인위적 대비로 나타난다. 특히, 몸과 패션과 관련하여서는 19세기 이후 남성성은 공적 영역에서의 신체적 효율성과 엄격한 외모로 제한된 반면, 여성성은 신체적 매력과 장식적 외모로 이분화 되는데, 이는 결국 '우월한 남성'과 '열등한 여성'의 구도 속에서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이라는 권력관계로 합법화 된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시각은 여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열등하다는 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구조주의적 페미니즘 구조주의적 시각에서는 여성들 혹은 남성들 개개인의 가능한 다양한 차이 뿐 아니라,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개별 정체성을 간과한다.⁶⁾ 따라서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난 사회 내에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에 작동하는 권력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Foucault의 성에 대한 사고를 중심으로 한 후기

구조주의적 성 개념은 다원적 성에 관한 유용한 관점을 보유한다.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에서는 성별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성차나 사회적 성별을 포함한 성적인 것의 전체로 성의 문제를 다룬다. 이는 성차가 성별 외에도 섹슈얼리티와 불가피하게 융합되어 있는 방식에서 알 수 있는데, Butler⁷⁾는 성차와 성별에 관한 우리의 사고가 일반적으로 이성애(heterosexuality)를 언급하기 위해 적용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상식적 이해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즉 성은 성차, 성별, 그리고 욕망의 통일체로, '강제적 이성애'에서 욕망과 성별은 서로를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이성애적 섹슈얼리티와 성별체계는 자연화 된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이러한 사고의 시작은 Foucault의 <성의 역사(Histoire de la sexualité)>에 연원하는데, 그에 따르면 성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유동하는 가변적인 주제이다. 후기구조주의자인 Foucault는 소위 '담론(discourse)'이라는 것을 통한 지식의 생산을 주장하는데, 여기에서 담론이란 '특정 순간, 특정 주제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언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일련의 진술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Foucault에게 성은 하나의 자연적 본질이나 억압이 아니라 성을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지식 체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Foucault는 성에 대해 비판적 연구를 위해서는 다원적 성 유형들 간의 형태를 포착해서 지배와 복종의 재편양상을 파악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후기구조주의적 측면의 성 개념은 특별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 하에서 특정한 형식으로 형성되고 규정되는 성의 무한한 유연성을 주장한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Foucault가 규율 담론이라 언급한 권력의 테크닉의 보급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동시에 새로운 저항의 영역, 즉 역의 담론의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배담론은 지속적으로 저항과 차이의 기회를 분출하므로, 현대의 몸과 패션은 새로운 하위문화적 주체의 출현에 따른 반패션이라는 또 다른 형식을 통해 성을 규정하는 새로운 의미창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성애의 규율적 도구는 끊임없이 다양한 대중매

체들을 통해 인용되고 반복되며, 패션잡지 역시 여성성과 남성성을 선회하는 유동적 의미들을 고정시키려는 재현들을 통해 이성애적 이상의 반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의미작용의 영역은 저항적인 성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잠재력을 지니므로 우리는 저항의 장소로서 남성과 이성애와 대립하는 여성이나 동성에 뿐 아니라, 후기구조주의의 다원적 시각에서 사회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여성성들과 남성성들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패션에 표현된 성

성을 성차, 성별, 그리고 성적 욕망과 관련된 개념으로 파악할 때, 성은 성적 몸에 근간하며 복식은 몸을 장식하고 거기에 성을 부여한다. Foucault의 자기의 테크놀로지는 주체가 성을 표현하기 위한 실천으로 복식 혹은 패션을 이용하는 전략과 관련되는데, 이는 Foucault의 몸의 담론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Foucault는 성과 몸이 권력을 매개로 형성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그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방하는 권력관계의 장이며 표현이다. 따라서 Foucault에게 몸은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몸을 자연의 범주로 둔 가장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에 반한다. 또한 Foucault의 몸에 대한 시각은 저항의 가능성을 담지하는 성, 즉 억압이 아닌 생산적이며 쾌락을 유도하고 지식을 형성하는 담론의 기능을 강조한다. 따라서 Foucault에게 몸은 규율권력에 의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유순한 몸'이며, 담론은 축적적일 뿐 아니라 몸의 미시적 수준에서 사람들의 실천을 통해 작용한다.⁸⁾ 따라서 현대 문화에서 몸의 실천들은 결코 억압이나 금욕주의로부터가 아니라, 여성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발적으로 내면화된 기준을 따라 자기를 관리하는 쾌락과 욕망의 만족, 즐거움의 추구로 나타나며 적극적으로 주입된다.

사실상, Foucault는 성별 뿐 아니라 패션 혹은 복식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몸에 관한 담론을 권력/지식에 관한 사고를 위한 주요한 물리적 실체로 파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의 시각은 패션 혹은 복식 담론이 특히 성과 관련한 몸의 훈련을 위해 작동하는 방식에 주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 Barnard⁹⁾는 패션을 현존하는 성별 정체성을 구축하는 재생산이자 혁명적 관행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논쟁하고 비평하는 활동으로 본다. 이는 Foucault가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을 고려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패션은 문화 및 역사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동시대에서도 다양한 성이 협상되는 하나의 지점이 된다.

패션이 성과 간밀하게 관련되는 방식에 대한 보다 분명한 예를 제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패션 담론들이 특별히 여성성과 결합되어 나타난 방식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몸을 여성과 등가물로 간주한 방식과도 관련된다. 그러므로 서구의 역사에서 여성은 특히 기독교적 교회의 영향으로부터 몸, 패션, 섹슈얼리티와 결합되고, 남성은 정신과 진리, 힘과 권위와 자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패션과 여성성의 결합은 19세기 귀족 출신의 장식적 남성이나 댄디의 패션이 여성적 유약함을 상징하고 성의 올바른 구분을 위반하며 때때로 동성애적 암시를 보인다는 이유로 비난받음으로써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담론은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의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차원으로 이해된다.

이로부터 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패션에 표현된 성은 진정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범주들을 차용한 것이며, 특별한 속성, 능력, 성향, 그리고 주어진 역사적 순간의 행위 형태에 부가된 문화적 의미의 산물임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Foucault식의 역사적 특수성과 관련하여,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서로 다른 여성성과 남성성을 규정하는 권력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로부터 성의 지배와 저항적 형식들, 그리고 이것이 몸과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패션에 표현된 성은 보다 다차원적인 관계와 권력의 그물망 속에서 이

해되어야 할 것이다.

Ⅲ. 사회기호학

Kaiser¹⁰⁾는 복식 혹은 패션의 사회적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맥락적 관점(contextual perspective)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패션이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패션의 의미는 맥락에 의해 변형되는 역동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사회기호학은 이러한 물질문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맥락적 연구로, 구조주의 기호학과 포스트모던 문화이론의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기호학과 사회학의 결합으로 등장한다. 이는 물질문화에 대한 해석을 단순히 기표와 기의의 차원에서 벗어나, 물질대상의 영역과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세분화된 기호의 분해와 생산자/물질대상/사용자의 관계를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물질문화의 함축적 의미작용에 대한 하나의 구체화된 방법론을 제시한다. 다음에서는 사회기호학의 등장배경인 기호학의 2가지 전통에서 출발하여, 기호학적 측면에서 패션을 연구한 Barthes의 사고와 이에 대한 비판 혹은 대안으로서의 사회기호학을 살펴봄으로써 사회기호학이 패션에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것이다.

1. 사회기호학의 등장배경

기호학의 기원은 Saussure와 Peirce로 부터 형성되는데, 이들은 기호가 어떻게 그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각기 다른 구조, 즉 Saussure는 2항적 관계 구조로 그리고 Peirce는 3항적 관계 구조로 설명한다. Saussure에게 기호는 의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는 물리적 실체에 해당하는 기표(signifier)와 정신적 개념인 기의(signified)로 파악되는 2항 대립구조를 특징으로 한다.¹¹⁾ 여기에서 기호의 의미는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연결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지칭하는 물질 대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Saussure의 기호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인 것으로 이는 사

회문화적 관습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적합하지만 자의적인 조합의 규칙을 '코드(code)'라고 하였다. 둘째, 기호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다. 셋째, 문화는 전언어적(pan-linguistic) 현상으로 기호학은 모든 문화적 형태들을 연구하는 방식이다.¹²⁾ 한편, Peirce는 기호의 3분법을 상정하여, 마음의 관념을 전달하는 운반체인 표현체(representamen) 즉 기호, 이 기호를 해석하는 또 다른 관념인 해석체(interpretant), 그리고 기호가 나타내는 대상(object)이 연결되어 이들 간의 관계에 의해 의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해석체는 1차적 기호를 이해하도록 돕는 또 다른 기호나 관념이므로 기호작용은 잠재적으로 '무한한 회귀(infinite regression)'의 과정을 낳고 의미는 언제나 연기된다. Peirce의 기호학은 다음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물질대상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단지 언어나 커뮤니케이션 체계만이 아닌 문화전반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하나의 기표에 대한 정확한 기의가 정의되지 않으며 의미는 항상 해석의 가변적 과정에 놓여있다.¹³⁾

따라서 Saussure의 기호학은 기표와 기의라는 기호의 두 측면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지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간과하였으며, 언어에서의 권력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닌다. 이에 반해 Peirce의 기호학은 물질대상의 존재와 의미의 다의성을 암시하면서 Saussure의 언어모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Saussure의 기호학을 '커뮤니케이션(communiation)의 이론'이라면, Peirce의 기호학은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이론'으로 언급되어진다.

기호학의 이러한 2가지 전통은 물질문화 현상에 적용되어 Barthes¹⁴⁾의 기호학과 사회기호학이라는 2가지 방식으로 이어진다. Barthes는 Saussure의 기호학적 전통을 따르지만, 그의 기호학에서는 말과 이미지 뿐 아니라 대상을 자체도 의미의 생산에서 기표로 기능한다. 이렇게 볼 때 의복은 단순한 물리적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기호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표는 의미가 전달되는 구체적이며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의복이나 이미지인 반면, 기의는

기표가 지시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으로,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문화적으로 유사한 패션 코드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한편 패션 메시지와 같은 개인적 표현행위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는데, 이는 새로운 의미의 생산이 가능함을 암시한다.¹⁵⁾ 이처럼 Barthes는 Saussure의 문제점을 Pierce의 사고를 통해 보완하면서 의미의 다의성을 고려한다. 즉, Barthes는 코드로부터 기호를 생산하고 나면 이 기호는 보다 넓은 문화적 주제나 의미로 연결된다고 보았는데, 여기에서 그 첫 번째 단계를 '의시(denotation)', 두 번째 단계를 '공시(connotation)'의 단계라고 하였다.¹⁶⁾ 나아가 공시의 층위는 그 이상으로도 발전해 그 자신의 지시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Barthes는 이를 신화의 층위에도달했다고 하였다.¹⁷⁾

그러나 Barthes의 분석은 모든 물질문화를 언어적 현상으로 분석해 패션의 경우에도 글로 찍어진 의복에 보다 집중하였으며, 더욱이 후기로 갈수록 의복과 같은 문화적 대상 자체에 대한 분석에서 벗어나 대상에 대한 텍스트 혹은 담론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Barthes가 복식 체계(dress system)와 패션 체계(fashion system)를 구분한 방식과도 관련된다.¹⁸⁾ 그는 복식 체계를 의미작용의 양식으로, 패션 체계를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으로 구분한다. 복식 체계에서 복식코드는 형, 색채, 재질, 스타일과 같은 요소의 선택을 통제하고 외모 선택을 규정함으로써 의미작용 체계로 구조화되며, 사회는 복식코드의 권력을 이용해 성, 연령, 계급 등을 구분한다. 반면에 패션 체계는 상품 판매를 위해 개인의 결정을 통제하고, 잡지, 광고, 패션쇼, 그리고 일상적 담론 등과 같은 도구적 조작으로 복식을 상품화시킴으로써 작동한다. 다시 말해, 패션 체계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Barthes가 '로고테크닉(logotechniques)'¹⁹⁾이라 칭한 다양한 기호학적 방법을 통해 외모 선택의 조작을 시도한다.²⁰⁾ 따라서 Barthes는 패션담론의 로고테크닉이 소비자를 조작해 복식 코드를 앞서가며, 복식이 패션, 즉 의복에 대한 담론적 세계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봄으로써, 복식이라는 물질대상 자체보다는 이데올로기적 그

물망으로서의 패션체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패션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Barthes의 기호학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Barthes는 복식을 패션의 이데올로기적 담론 안에서만 기능하는 것으로 보아 물질대상으로서의 복식 자체는 분석대상에서 축소될 뿐 아니라, 여기서 패션은 대상으로가 아닌 담론으로만 기능한다. 둘째, Barthes는 패션의 의미작용의 측면을 배제시키는데, 이는 성을 포함한 문화적 범주의 다의성과 의미변화의 가능성을 복식의 경우에만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Barthes는 이미지를 언어의 단순한 보완물 정도로만 간주하여 언어적 측면의 우월성을 강조하지만,²¹⁾ 현대 패션사진에는 대체로 언어적 요소가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와 이미지 간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넷째, Barthes의 연구대상의 선정은 여성패션잡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패션을 여성만의 전유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과 같은 패션의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는 지점을 보인다.

2. 사회기호학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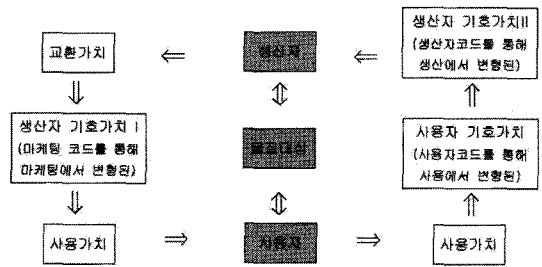
물질문화의 기호학의 두 번째 측면인 사회기호학은 Pierce의 전통을 따르면서 Barthes의 전언어학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해, 상징문화와 물질문화 사이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포스트모던 문화 분석에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해체주의에서 Derrida가 언급한 '현존의 형이상학'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대응관계는 없으며 기표는 항상 다양한 해석을 향해 열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의미의 다의성은 수용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물질대상의 존재를 부정할 뿐 아니라 의미를 지배하는 권력의 개념과 사회적 메커니즘을 간과한다.²²⁾ 이에 사회기호학은 기호의 해석에는 다의성의 딜레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표를 지배하는 의미에 대한 제약은 늘 존재하며 그러한 제약 중 가장 강력한 것을 물질세계의 존재로 파악한다. 따라서 사회기호학은 기호 뿐 아니라 물질대상과 사회적 메커니즘의 전 영역을 다루며, 커뮤니케이션의 체계가 아닌 의미작용의 체계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사회기호학은 물질대

상이 사회적 과정에 의해 변형된 공시적 의미를 갖는 방식을 추적하며 생산자/물질대상/사용자 전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코드의 확인과 관련되므로, 종종 코드의 역사적, 사회학적 연구를 포함한다. 결국, 사회기호학적 접근의 중심 측면은 권력관계의 전개를 통해 지식을 구속하고 의미를 제한하거나 조작하는 메커니즘의 규명과 분석이다.

사회기호학은 물질대상, 기호의 의미작용, 사회적 맥락이라는 3중의 관계에 따른 분석을 제시하며, 사회기호학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호는 의미의 영역과 물질세계의 접합으로 나타나며 의미의 무한한 회귀 뒤에는 실재적 지시대상이 존재한다. 둘째, 의미작용의 체계는 의식적 기호와 사회적 가치로부터 나온 문화적 코드, 즉 문화의 공시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조이다. 사회기호학에서 물질대상에 대한 이해는 모두 사회적 실천들과 코드화 된 이데올로기로부터 연원한다. 여기서 코드와 맥락은 의미론적 장을 구성하는 구속으로 작동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영역은 지식과 권력의 접합에 의해 구조화된다. 셋째, 의미는 일상생활의 경험에 근거하는데, 이러한 경험은 물질세계와 결합하며 문화적 코드를 지지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창조된다. 넷째, 기호는 일상생활에서의 사용가치를 통한 기호의 창조와 상품 판매에서의 교환가치에 의한 기호의 사용을 포함한 위계적 권력 체계에 따른 기호의 수용 간에 놓인 사회 내부를 순환하는 기호 매개체(sign vehicles)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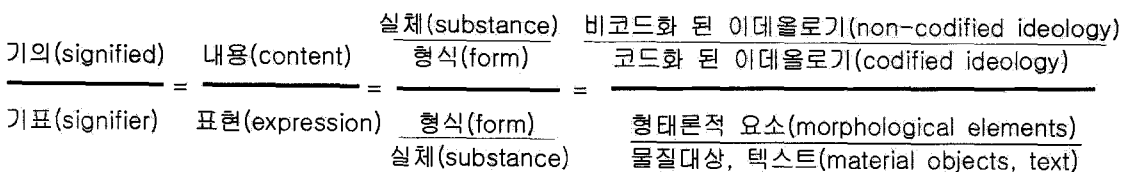
사회기호학적 접근은 기호가치와 물질생활 간의 접합을 분해하는 기호 모델 (그림 1)을 사용하는데, 이 모델에서 기표를 표현으로, 기의를 내용으로 보고 이들은 각각 실체와 형식으로 분리된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는 사회집단의 가치 체계로서 기호의

내용과 관련되며, 물질성은 기호의 표현과 연결된다. 여기에서 내용의 실체는 지배적으로 결정화된(crystallized) 문화, 즉 특별한 문화적 실천에 속하는 코드화 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원과 배경을 구성하는 사회의 문화인 반면, 내용의 형식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상징적 행위를 통해 실천으로 코드화되어 왔으며 대상세계에서 물질화 될 수 있는 특정 이데올로기이다. 그리고 표현의 형식은 코드화 된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특정한 형태론적 요소를 지칭하는 반면, 표현의 실체는 대상을 자체로 코드화 된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며 물질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기호는 의미작용 체계의 일부이며, 다의성은 어떠한 주어진 문화적 표현에 대해서건 몇몇 형태의 코드화 된 이데올로기의 교차점을 수반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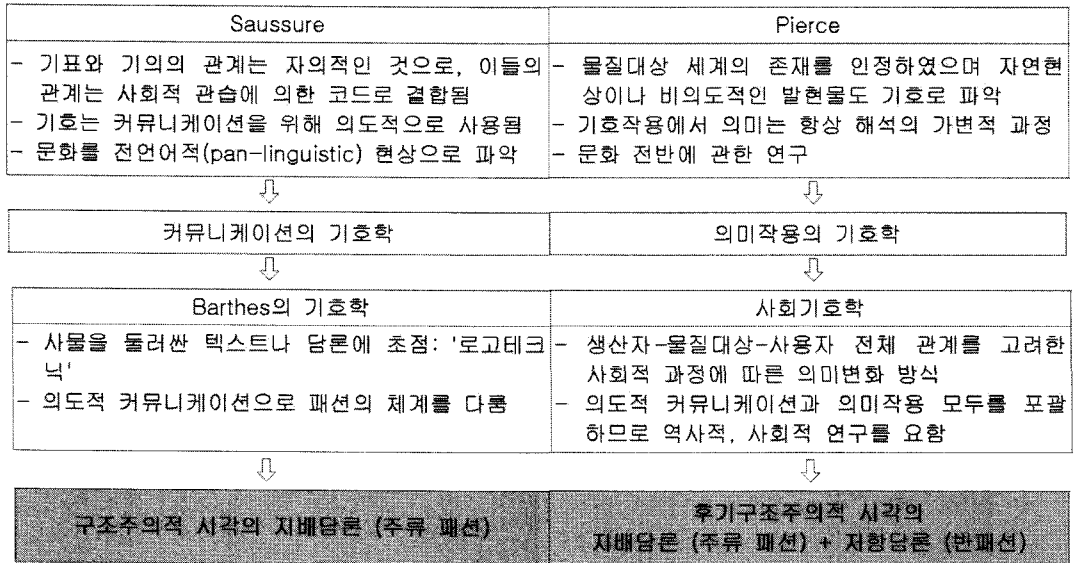
〈그림 2〉 사회기호학의 3 단계

또한 사회기호학 모델은 생산자/대상/사용자 관계로 의미의 생산과 교환을 구현한다. Gottdiener²⁴⁾는 사회적 맥락 내의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생산과 통제 과정을 다음 3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림 2). 첫 단계는 생산자/사용자의 단계로, 자본주의적 상품 제조업자들은 교환가치를 위해 대상을 생산하는 반면, 구매자들은 사용가치를 위해 상품을 열망한다. 따라서 생산자의 의도는 교환가치로부터



〈그림 1〉 사회기호학 모델

〈표 1〉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에 따른 2 가지 물질문화 연구의 비교



자의적 기호가치로의 상품의 변형과정을 통해 사용 가치와 결합하므로 이 단계는 생산자에 의한 로고 테크닉과 관련된다.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대상의 단계로, 일상생활 속의 대상은 사용가치로부터 기호 매개체로 변형될 수 있는데, 사용자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문화적 상징의 표현이나 특정 집단의 실천 혹은 하위문화적 활동의 사용을 위해 대상을 수정하거나 창조한다. 여기서 사용자에 의한 의도적인 기호학적 변형은 반문화적 요소를 보이므로, 이 단계는 사용자에 의한 문화 창조로 하위문화의 연구와 관련된다. 세 번째 단계는 생산자/대상의 단계로, 이는 생산자 스스로에 의한 의미의 창조와 관련된다. 하위문화 기표의 의미의 변형은 문화산업에서 생산자에 의해 또 다시 보다 시장성 있고 덜 급진적인 의미로 변형된다. 이처럼 사회기호학의 생산자/대상/사용자 관계의 3단계 모델은 의미의 생산과 기호매개체의 사회변형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적 의미의 변형이 발생하는 지점들 뿐 아니라 교환으로부터 사용, 기호로의 가치순환의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생산자는 상품판매를 위해 기호가치를 대상의 사용가치와 접목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측면 뿐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변형된 의미가

생산의 문화산업에 의해 다시 변화되는 이데올로기적 통제라는 2 가지 방식으로 대상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순환 과정에서 하위문화의 의미의 생산은 미묘한 수준에서부터 주류에 대한 전면적 저항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 생산의 중요한 원천을 제공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사회기호학의 주된 목적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물질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조주의적 분석의 오류는 기표와 기의 간의 일대일 대응관계에 기초하였고, 구조주의와 해체주의는 모두 물질세계의 존재를 간과하였다는 문제를 낳았다. 물질문화에 대한 2가지 기호학에서 Barthes의 기호학이 물질대상 자체라기보다는 기호와 사회 내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이라면, 사회기호학은 후기구조주의적 입장에 근거해 모든 문화적 대상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갖는 물질대상인 동시에 의미작용의 요소로 본다. 여기서 대상의 의미는 권력과 지식의 집합에 의한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전제하며, 다양한 사용자들에 의한 코드의 다의성은 하위문화에 의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²⁵⁾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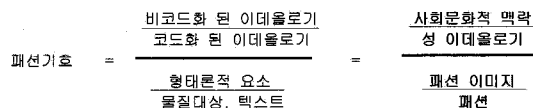
IV.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시각

본 절에서는 사회 내 물질대상과 이데올로기의 접합을 통해 맥락적 연구방법을 제시한 사회기호학 이론을 발전시켜 패션에 표현된 성을 연구하기 위한 사회기호학적 분석틀을 세우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패션의 연구에 자주 적용되어 온 Barthes의 기호학과 포스트모던 문화이론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패션에 표현된 성을 연구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물질대상에 대한 하나의 맥락적 연구방법을 제시한 사회기호학적 시각은 본 연구에서 패션에 표현된 성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구조주의 기호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패션을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형태로만 파악하던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기호학은 패션을 물질대상이자 기호매개체로 바라봄으로써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패션으로 코드화 된 이데올로기를 추론하도록 한다. 둘째, Barthes의 기호학이 패션을 의도적 커뮤니케이션의 체계로 파악해 사회 내 주류패션 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 반해, 사회기호학은 패션을 의미작용의 체계로 바라봄으로써 사회 내 지배담론과 주류 패션 뿐 아니라, 하위문화 집단에 의한 저항담론과 반패션²⁶⁾을 통한 새로운 의미창조와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패션의 의미작용의 측면은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 따른 코드의 변화를 통해 동일한 성을 표현하는 패션 이미지의 역사적 변화와 역사적으로 유동하는 성 이데올로기의 변화양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시각은 물질적 실체로서의 패션, 형식상으로 양식화된 패션 이미지, 패션으로 코드화 된 성 이데올로기, 그리고 의미의 우선성을 제공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간의 관계에 따른 분석을 요구한다. 이는 물질대상인 패션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변형된 성과 관련한 공시적 의미를 추적하는 것으로, 패션코드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연구를 포함한다.

(그림 3)은 사회기호학 모델(그림 1)을 패션에

적용하여 재해석한 본 연구의 분석적 틀이다. 사회기호학 모델에서 기표로서의 표현과 기의로서의 내용은, 패션에 표현된 성에 적용되었을 때 각각 패션으로 나타난 물질대상의 영역과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체계인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각각 실체와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표현의 실체인 물질대상 자체인 패션은 몇몇 형식의 패션 이미지로 유형화되며, 이러한 패션의 형식적 요소들은 다양한 성 정체성의 실체들로부터 내용의 형식인 코드화 된 성 이데올로기와 결합한다. 그리고 특수한 시기의 성 이데올로기의 다의성은 내용의 실체인 사회적 이념, 즉 사회문화적 맥락 하에서 그 의미를 획득한다.



〈그림 3〉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모델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모델의 분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표현의 실체는 패션 자체로 이것이 모여 패션 이미지를 창출한다. 물질대상으로서의 패션은 실루엣, 색채, 소재, 아이템 등의 요소들로 세분화되며, 패션사진의 텍스트로서의 패션은 복식을 포함한 여러 시각적, 편집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를 포함한다. 둘째, 표현의 형식은 코드화 된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특정한 패션 형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패션 이미지로 계열체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패션 이미지는 패션이 어떻게 특정 룩이나 스타일을 구현하는 지를 보여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합체적 구조를 통해 주류패션 혹은 반패션의 형태로 성 이데올로기에 부합한다. 셋째, 내용의 형식은 사회 내에서 물질화 될 수 있는 성 이데올로기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상징적 실체들로 코드화된다. 패션 소비자는 다양한 패션 이미지들을 통해 개인의 성 정체성을 실험하고, 문화의 일원으로서 지배 혹은 저항적 성 이데올로기에 동참한다. 따라서 이 과정은 패션을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코드로 작용한

다. 넷째, 내용의 실체는 사회 내에서 지배적으로 결정화 된 이념, 즉 사회문화적 맥락을 나타낸다. 이는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체계와 이데올로기를 드러낼 것이며 패션으로 코드화 된 성 이데올로기의 배경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언어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패션을 여성만의 전유물로 고려한 Barthes의 한계를 수정하여, 패션사진의 언어와 시각적 요소 모두를 포함하며 여성패션과 남성패션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 모델에 따른 패션사진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들을 포함할 것이다 (표 2). 먼저, 패션사진(표현-실체)에는 모델, 복식, 배경, 편집 등의 시각적 요소와 제목, 세부설명, 본문, 활자체나 배치 등 언어적 요소가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패션 사진에 재현된 패션이미지(표현-형식) 즉 특정한 룩이나 스타일을 형성할 것이며, 사회에서 주류패션과 반패션을 형성하는 패션이미지는 사회 내 지배 혹은 저항 담론, 즉 패션으로 코드화 된 성 이데올로기(내용-형식)를 반영할 것이다. 이러한 코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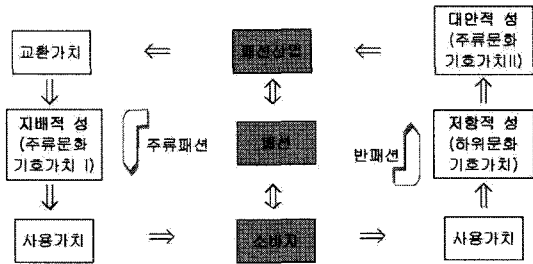
된 의미의 영역은 사회문화적 맥락(내용-실체)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는 해당 패션사진 뿐 아니라 타 매체담론이나 다양한 문화이론과도 상호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성 뿐 아니라 계급, 연령, 인종 등 다른 문화적 범주, 그리고 패션 산업적 측면과도 관계될 것이다²⁷⁾.

또한 사회기호학의 생산자-대상-사용자의 3단계 모델에서 대상을 패션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생산자는 패션산업의 디자이너나 기업주로, 사용자는 패션상품의 소비자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패션산업의 로고테크닉으로부터 나타난 주류패션은 소비자에게 주류문화의 지배적 성을 반영하며, 하위문화 소비자 집단에 의한 반패션은 새로운 패션코드의 창조를 통해 저항적 성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문화의 기호가치는 다시 패션산업에 의한 반패션의 전유를 통해 주류문화로 흡수되는데, 이는 대안적 성이라는 절충적 양상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패션산업과 문화를 통해 사회 내 주류집단을 형성하는 헤게모니적 성을 '지배적 성'으로, 이에 대한 하위문

<표 2> 패션사진의 사회기호학적 분석의 세부사항

사회문화적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 이론 및 매체 담론 - 성 이외의 계급, 연령, 인종 등 다 문화적 범주와의 관계 등 - 패션 산업적 측면 	
성 이데올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으로 코드화 된 다양한 성 정체성들의 권력 관계 (지배적 성 - 대안적 성 - 저항적 성) 	
패션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룩이나 스타일과 같은 패션 형식 - 주류패션과 반패션을 형성함 	
패션(패션사진)	모델	표정 포즈와 몸 성별, 계급, 인종, 연령 등
	복식	아이템 실루엣, 색상, 소재 디테일 및 액세서리 헤어
	배경	장소 소도구
	편집	배치 조명 및 색상 카메라 앵글
	언어	제목 및 활자체 세부설명 배치

화 집단의 성을 '저항적 성'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패션실천을 각각 주류패션과 반패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하위문화 집단의 반패션이 주류패션과의 절충을 통해 지배문화로 재진유된 경우를 '대안적 성'이라 규정할 것이다 (그림 4).



〈그림 4〉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의 3 단계

V. 결론

성은 단일하거나 고정적이기 보다는 권력의 그물망 속에서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며, 물질문화의 하나인 패션은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나타난 성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기 위한 상징적 기호매개체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후기구조주의적 측면의 다원적 성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기호학적 시각에서 2000년 이후 남녀 패션잡지에 나타난 다원적 성 유형과 현대패션에 코드화 된 성 이데올로기를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제 1보는 실증적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후기구조주의적 성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사회기호학 이론으로부터 물질대상으로서의 패션에 표현된 성을 연구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상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의 개념은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유한다. 구조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은 주로 성별(gender)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는 성차와 성별의 구분을 통해 사회구조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불평등한 사회에서 권력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성차와 성별 관계의 자의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성별관계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초래한다. 따라서, 구조주의적

페미니즘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난 사회 내에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성 정체성들 사이에 작동하는 권력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Foucault의 성에 대한 사고를 중심으로 한 후기구조주의적 성 개념은 단순히 성별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성차나 사회적 성별을 포함한 성적인 것의 전체로 성(sexuality)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 성은 특별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성을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지식 체계의 산물로, 무한한 유연성을 보인다. 따라서 Foucault는 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성 유형들 간의 형태를 포착해서 지배와 복종의 재편양상을 파악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규범은 동시에 새로운 저항의 영역, 즉 역의 담론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처럼 성에 대한 후기구조주의 다원적 시각은 성을 표현하기 위한 실천들로서 몸과 패션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패션에 표현된 성은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나타난 보다 다차원적인 성들 간의 관계에 의한 권력의 그물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이로부터 현대에 나타난 다원적 성의 지배와 저항적 형식들, 그리고 현대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기호학은 물질문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맥락적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패션에 표현된 성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시각은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물질대상으로서의 패션과 접합된 성 이데올로기의 파악이 가능하고, 사회 내 지배담론과 주류 패션 뿐 아니라, 저항담론과 반패션을 통한 새로운 성의 창조와 코드의 변화를 제시하며, 동일한 성을 표현하는 패션 이미지의 역사적 변화로부터 역사적으로 유동하는 성 이데올로기의 변화양상을 추론하도록 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패션에 표현된 성에 적용된 사회기호학 모델에서 패션 (표현-실체)은 몇몇의 패션이미지 (표현-형식)로 유형화되며, 이러한 패션이미지는 각각 패션으로 코드화된 성 이데올로기(내용-형식)에 부합한다. 그리고 특정한 시기의 성 이데올로기는 사회문화적 맥락 (내용-실체) 하에서 그 의미를 획득한다. 또한 사회기호학의 생산자 - 물질대상 - 사용자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사회 내 지배담론으로부터 주류패션으로 나타나는 '지배적 성,' 하위문화 집단의 저항담론으로부터 반패션을 형성하는 '저항적 성,' 그리고 주류패션과 반패션의 절충을 통해 지배담론이 된 '대안적 성'으로 적용되었다.

다음 제 2보에서는 제 1보의 이론적 배경과 본 연구를 위한 패션에 표현된 성에 적용된 사회기호학적 틀로부터, 2000년 이후 패션에 표현된 성을 남녀 패션잡지들로부터 유형화하고 현대의 성 이데올로기가 패션으로 코드화 된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현대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 이데올로기를 추론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본 연구에서 '성'은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sexuality'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 이와 혼동될 여지가 있는 'sex'는 '성차'로, 'gender'는 '성별'로 표기하기로 한다.
- 2) Foucault, Michel. Histoire de la sexualit Tome 1-la volont de savoir, 이규현(역) (1997). 性的 歷史-제 1권 앞의 의지. 서울: 나남출판.
- 3) 2000년 이후 남녀 패션잡지에 표현된 다원적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의 실증적 내용은 지면의 제한상 차후 제 2보에서 기술될 것이다.
- 4) 본 고에서 '성'은 'sexuality'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연관된 개념으로 'sex'와 'gender'는 각각 '성차'와 '성별'로 번역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고에서 종종 등장하는 '섹슈얼리티'라는 명칭은 미시적 차원의 성의 의미로 '성적 욕망'을 지칭한다.
- 5) Oakley, Ann. Sex, Gender and Society. Entwistle, Joanne (2000). *The Fashioned Body*. Cambridge: Polity. pp. 142-143에서 재인용.
- 6) 조현순 (2001).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패러디, 수행성, 복종, 우울증을 중심으로. *영미문화 페미니즘*, 9(1), p. 179.
- 7) Butler, Judith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p. 22.
- 8) Entwistle, Joanne. *op. cit.*, p. 17.
- 9) *ibid.*, p. 97.
- 10) Kaiser, Susan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ition revised*.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pp. 29-63.
- 11) 박정순. 대중매체의 기호학. 서울: 나남출판, pp. 102-137.
- 12) Gottdiener, Mark (1995). *Postmodern Semiotics-Material Culture and the Forms of Postmodern Life*. USA Massachusetts: Blackwell. pp. 8-9.
- 13) *ibid.*, pp. 9-12.
- 14) Barthes, Roland. *Syterne de la Mode*.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역) (1998). *모드의 체계*. 서울: 동문선.
- 15) Kaiser, Susan. *op. cit.*, pp.221-222.
- 16) 여기에서 의사는 기술적인 수준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의미에 합의한 코드지만, 공시는 이차적 종류의 코드로 보다 폭 넓은 영역의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와 가치 체계들에 의해 해석되고 소통된다.
- 17) (Ed)Hall, Stuart (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publications. pp. 36-39.
- 18) 복식(dress)은 인체 변형이나 인체를 둘러싼 부가물들의 집합체로, 여기에는 의복, 보석류, 그리고 기타 장신구들을 포함해 인체에 부가되는 모든 항목들 뿐 아니라, 머리모양, 화장, 문신, 향기까지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반면에, 패션(fashion)은 의복 외에도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물질적, 비물질적인 문화적 산물을 언급하며, 여기에는 패션의 생성, 성장, 소멸이라는 유행주기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근거를 둔 사회적인 가치판단이 부여된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복식(dress)이 패션이 되는 것은 아니다 (Roach-Higgins, Mary Ellen & Eicher, Joanne B. (1992). *Dress and Identity*. *CTRJ*, 10(4), pp. 1-3).
- 19) 이 용어는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광고를 통해 작동하는 소비자 조작의 일반적인 현상을 가리킨다. 로고테크닉은 지식-권력-문화가 접합되는 중요한 예가 된다.
- 20) Gottdiener, Mark. *op. cit.*, pp. 38-39.
- 21) Jobling, Paul (1999). *Fashion Spreads*. Oxford, New York: BERG. pp. 89-90.
- 22) Gottdiener, Mark. *op. cit.*, p. 25.
- 23) *ibid.*, pp. 27-29.
- 24) *ibid.*, pp. 180-184.
- 25) *ibid.*, pp. 25-27.
- 26) 여기서 반패션의 정의를 Barnard 는 패션에 의해 구성되고 의미되어지며 재생산된 정체성 위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Barnard, Malcolm (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p.134.), Holland 는 저항적 혹은 반문화적 복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주로 하위문화적 측면과 결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Holland, Samanda (2004). *Alternative Feminities: Body, Age, Identity*. Oxford, New York: Berg. p. 77. 이 점에서 본 고에서는 반패션을 전체 패션담론에 대한 하나의 하위 테마로 주류패션의 주변부에 위치한 저항적 복식으로 간주할 것이며, 주류패션과의 지속적인 관련성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통해 주류패션으로 전유될 가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고려한다.
- 27) Entwistle 는 Leopold를 인용하면서 패션에 대한 분석은 생산과 소비와 관련한 산업적 측면과 정체성과 성 등에 관한 담론적 영역 모두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 바 있다 (Entwistle, Joanne. *op. cit.*, p. 208).